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니

김한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제시하지만, 대체로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것들이다. 물론 순전히 자기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성경 구절이나 신앙고백서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라도 그 내용은 결국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의하여 해석되고 구현된 교회이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이해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서로 원만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이어지는 말은 “믿사옵나이다”이다. 즉 교회를 믿음의 향목으로서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주일 54문에서도 이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 보통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아는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을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다. 교회가 드러내는 모습이나 어떤 현상, 우리의 경험 같은 것을 근거로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안다’고 이야기하지, ‘믿는다’는 말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교회에 대한 우리 생각의 출발점부터 바꾸어 놓는다.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평가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삼위 하나님의 경영이 이

루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믿고 나오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를 믿고 고백함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근거는 첫째,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은 추상적인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구원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교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최초로 설교된
성신교회 (하이델베르크)

에서 알게 되는 분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가 각기 구별되어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그분의 구원 사역이 나타나는 현장인 교회에 대하여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

한 믿음으로 교회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고백한다. 자신의 경험이나 주위에서 보는 것으로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간다.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으로 삼으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의 믿음은 근본적인 데서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영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떠나서는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肢體)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54문은 교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 문답을 살펴보겠다.

누가 -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자,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마 16:16, 18).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라

고 구체적으로 명하시고는, 주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그들과 함께하시면서 친히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을 약속하셨다(마 28:18-20).

과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로부터 성신을 받아서 보내심으로써 오순절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스도

께서 성신으로써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세우시는 것이므로, 이러한 교회는 ‘그의 몸’이라 불린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 ‘성신의 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성신교회의 내부

언제 -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중’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배를 교회의 핵심으로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처음부터 교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태초에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것도 교회였다. 수가 적었지만 참된 믿음이 있었던 노아의 가족도 교회였다. 아브라함의 가족도 교회였고 출애굽하여 시내 산에 서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교회였다(행 8:38). 구약의 교회는 시온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성신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고 선언하셨다(요 4:23-24).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성신을 보내어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다. 비록 교회가 외적으로 심히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라도 땅 위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절). 마지

막 날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이르기까지 성신과 말씀으로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일은 계속될 것이다.

어디서 -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천사들이나 다른 피조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부르시되 ‘모든’ 인류 가운데서 부르셨다. 이것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의 뜻이다. 족장 시대의 교회는 가족이었고,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구약의 교회가 섰지만, 오순절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다. 장차 마지막 날에는 수많은 방언과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송할 것이고, 그날에는 교회의 보편성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계 5:9).

무엇을 - 영생을 위해 선택된 교회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선택’을 교회에 적용한다.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에 영생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에서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다(요 10:28-29). 비록 교회에 여전히 부족함과 결핍이 있고 죄악적인 것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교회를 거룩하게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다)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라도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전 1:2. 참조. 엡 1:4).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족속’이라고 하신다(출 19:5-6; 뱀전 2:9).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신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고전 3:16-17). 교회는 ‘영생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모임이고 주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여기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다)

어떻게 - 성신과 말씀에 의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54문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성신’을 함께 고백한다. 성신께서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신을 항상 함께 이야기한다. 말씀과 무관하게 성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말씀과 성신을 동일시하면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가 곧 신앙을 세워 주는 것인 양 오해함으로써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메마르게 된다. 그러나 성신께서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심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성신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 또한 성신께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롬 10:17). 즉, 믿음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물론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후 2:16). 이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비밀’이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작용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참된 믿음은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이다(21문).

교회의 통일은 이처럼 참된 믿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엡 4:13).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결코 교회의 통일성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왜 - 자신을 위하여

교회는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엡 1:3-6)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만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보면 ‘선택’을 교회와 관련하여서 가르친다. 우리는 선택을 개인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어떤 개인이 선택을 받았는가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며, 해답이 없는 질문이다. 그러한 식의 질문은 항상 결정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성경에서 ‘선택’에 대한 구절을 보면 모두 ‘교회를 선택하신 일’에 관한 것들이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였고(출 19:5-6) 신약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이다(벧전 2:8-9). 선택을 교회와 관련하여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로 이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모임이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모임임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임의적인 단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했나 -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주님께서서는 성신과 말씀을 쓰셔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을 쓰셔서 불러 모으시는 교회’는 구체적인 지역교회이다. 주님께서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친히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백화점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뒤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

도께서 피로 사서 모으신 주님의 기관이다. 주님께서 피로 사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뜻이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주님의 심부름꾼일 뿐이고, 교회의 모든 힘은 주님에게서 나온다. 교회의 회원들이 정당한 각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봉사를 받으셔서 교회에 유효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교회가 자발적인 단체라면 회원들의 봉사에 의존하여 유지되겠지만, 교회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신을 통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회원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러면 하늘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을 하실 것이다.

“교회를……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여 나가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임임을 암시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때때로 사자의 입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들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딤후 4:17, 18). 또한 신자들은 말씀이 전파되는 지역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참조. 요 10:27-29).

실존적 고백 -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리할 것을 믿습니다.

54문의 두 번째 고백은 첫 번째 고백을 좀 더 개인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이 신학적인 진술이라면, 두 번째 문장은 실존적으로 외치는 것이다. 즉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그 안에 넣고서 고백하는 것이다. “지금 이 교회”라는 말을 보면 교회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이 교회를 가리키면서 자신이 이 교회의 지체임을 고백한다.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신성로마 제국의 변경에 있는 작은 회중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러한 큰 시각을 갖고서 담대하게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고백하였다. 그들은 숫자로 보더라도 로마교회에 비하여 턱없이 적었고, 루터교회에 비하여서도 적은 무리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일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발견하였다. 우리가 지금 회원으로 있는 이 교회는 지극히 작은 교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의 작은 교회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이다. 우리는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이며”라고 고백하면서 이 교회와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이다.

보론 -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에 대하여

사도신경에서는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이것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의 통일성·거룩함·보편성·사도성 등은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현실에 있는 ‘보이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속성이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설명은 현실적인 면에서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실의 모습을 근거로 한 이러한 생각은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첫 구절에 대하여서부터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현실의 모습을 근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믿고 고백해야 하는 대상이다. 비록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에 대하여 고백한다.

둘째,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날카롭게 양분하는 방식은, 멀게는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에, 가깝게는 현상계와 본질계에 대한 칸트의 관념론적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가 본질의 세계이고 현실은 그림자이며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

는데, 그러한 이교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교회를 질식시키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원론에 따라서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고, 또한 그 결과 현실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당연시하고 그냥 체념한 채 지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을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예도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교회의 다형성’(pluriformity of church)를 주장하였다.



아브라함 카이퍼 (1837-1920)

그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본질의 세계에 있고, 이 세상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지역 교회, 기독교 학교, 기독교 정당, 기독교 저널리즘, 기독교 병원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세상에서부터 뒤로 물러서려는 재세례파의 은둔주의에서 벗어나서 신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를 부분적인 것으로 놓고 기독교적 사회 활동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속화하기 쉽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에 사변적인 요소가 있음을 잘 지적한 사람은 클라스 스킨더(Klaas Schilder)이다. 그는 카이퍼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였다.

히말리아 산 중턱에 걸린 구름 때문에 산 위는 보이지 않고 구름 아래 부분만 보인다고 가정을 하자. 어떤 철학자가 산의 보이는 부분을 가리켜 초월적인 부분의 ‘현현’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산의 '일부'라고 대답을 하겠다.¹

셋째, 역사적으로 보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요즈음에 사용되는 의미와는 다른 맥락에서 나왔다. 16세기 종교개혁 무렵에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자로 간주되었고 그 사회 역시 실제의 모습과 관계없이 기독교적인 사회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시대에는 교회의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칼빈 선생님은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즉 하나님은 아시지만 엘리야는 아직 볼 수 없었던 교회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쓴 것이다.² 따라서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약한' 교회였지 천상에 있는 또 다른 완전한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칼빈 선생님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당시의 교회가 약



클라스 스킨더 (1890-1952)

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람으로서는 잘 볼 수 없고 또한 교회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로서는 한 지역 교회에 대하여서도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신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면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³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서 말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끝으로, 교회에 대한 성경의 여러 표상들 중에서 특히 "하늘의 예루살렘"(히 12:22),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 4:26), "새 예루살렘"(계 3:12, 21:2)이라는 말은, '이 지역 교회는 그림자이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참된 원형의 교회'라는 식의 생각이 비성경적임을 바르게 지적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 지역 교회가 곧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고대 교부 중의 한 사람인 이그나티우스가 말한 것처럼,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에는 보편적 교회가 있다."⁴

1. J. Douma, Another Look at Dooyeweerd, 17, 20에서 재인용. 스킨더가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이나 교회론을 비판한 것은 그 근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기독교인이 '직분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스 스킨더, 『그리스도와 문화』, 손성은 역 (지평서원, 2017); 김재윤, 『개혁주의 문화관 - 교회 중심으로 본 카이퍼, 스킨더, 제3의 길』 (SFC 출판부, 2015).

2. 칼빈, 『기독교강요』, 4권 1장 2, 7, 8절

3. J. Murray, Christian Baptism (P&R, 1980), 32..

4. Ignatius, Smyrnaeans, viii, 2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루터의 도시를 가다

18

할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